

여야 대표 회동 공들이는 靑 “黃에 계속 맞춰주긴 어려워”

한국당 ‘단독 영수회담’ 고수...靑, 4당 대표 회동만이라도 추진 검토

청와대가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성사를 위해 고심하는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물리고, 5당 대표 회동이라는 기존 틀을 관찰시키기 위해 정부라인을 풀가동 하고 있다.

북한의 무려 시위가 계속되는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 대표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 회동의 취지에 따라 한시라도 빨리 회동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여야 5당 대표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 영수회담’을 내세우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배제한 4당 대표 회동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청와대 인위에서 감지된다.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라인은 주말 동안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이 ‘1대1 단독 영수회담’ 방식이 아닌 다자회담의 형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전날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 당별로 1대1로 (회동) 하면 되지 않은가.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회동 요구를 재확인했다. 한국당만 별도로 회동하기 어렵다면, 나머지 3당 대표도 따로 만나면 된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큰 틀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시각각 참석 조건을 바꾸고 있는 황 대표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등으로 의제를 확대한다면 얼마든지 참석하겠다는 황 대표의 요구를 청와대가 수용했지만 다시 형식을 문제 삼는 등 참석 조건을 높이고 있다는 데 문제 인식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특정 정당과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당과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가 계속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하나를 들어 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고, 그것을 수용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로서는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영수회담 주장은 결과적으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지연시킬 뿐, 나머지 3당과의 형평성 차원에서조차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대북문제 해결과 대내적으로는 추경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등 안팎으로 정국이 엄중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 회동이 시급한데,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매몰돼 회동 시기를 늦추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제2의 홍준표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묻어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7월27일과 9월27일, 6차 핵실험 등 고도화 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두 차례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불참으로 결국 4당 대표들과만 회동한 바 있다.

당시 홍 대표는 “들러리 설 수 없다”, “비교적 단체와 함께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며 불참을 고수했고 지난해 3월 이뤄진 세 번째 여야 5당 대표 회동 때도 별도의 ‘단독 회담’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참석했었다.

뉴스스



여야 각당의 기도 1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범오식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원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 차기 원내대표, 김성식 합의추대? 오신환 2과전?

바른미래당이 15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나선다. 누가 바른미래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을지 향후 패스트트랙 추진 방향과 당내 주도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경선에는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김성식(서울 관악구갑·재선) 의원과 오신환(서울 관악구을·재선)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이 합의 추대될 것인바 가능성이 유력하게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과 오 의원의 2과전 구도로 치러질 것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당내에선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 결정으로 가까스로 갈음이 봉합된 만큼 ‘화합’ 차원에서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성식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지만 계파색이 다소 옅다는 점에서 합의 추대에 장점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현재 호남계이자 당권파에서 김 의원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는 등 지도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인사로 분류되면서도 바른정당계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논란 때는 지도부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유승민계·안철수계가 김 의원의 대항마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차기 원내대표에 따라 패스트트랙 추진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데다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가 남은 만큼 손 대표 체



김성식



오신환

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신환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바른정당 출신이지만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스팅보더로 꼽히는 만큼 합의 추대에 대한 의견 조율 및 대략적인 표 계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립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당 화합을 끌어낼 수 있는 점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지 않겠

계파색 열은 김성식 합의추대 가능성 유력해 ‘사보임 반발’ 오신환 출마양자 대결 전망도

당 사무총장직을 잡음 없이 맡아왔다. 사계특위 검찰경철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은 13일 후보 등록을 받아 15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복수 후보 등록 시 후보 간 협상으로 한 후보자가 사퇴하며 추대되거나 표 대결로 가게 된다.

당권파를 제외하고 중립파로 분류되는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개

나”라며 “물망에 오른 후보가 많지 않으니 서로 의견을 타진해서 합의를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오신환 의원이 결국은 출마 의지를 굳힐 것이다. 합의 추대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원내대표 경선이 손학규 대표 퇴진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방어하는 입장과 흔들리는 쪽이 팽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나경원 ‘달창’ 발언...與 “몰랐다면 분별 없고, 알았다면 교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가리켜 ‘문빠’ ‘달창’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채 한 것이라면 교활하기 그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사과했지만 과연 사과한 건지 강한 의문이 남는다. ‘달창’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법관 출신의 나 원내대표가 의미도 유래도 모르고 썼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담을 언급하며 “KBS 기자가 (독재에 대해) 물어봤더니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것 아니죠”라고 했다. ‘달창’이라는 단어는 스스로를 ‘달빛가시나무’라고 칭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달빛창녀단’이라고 속되게 이르는 용어의 줄임말이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사과하려면 분별력 없음을 사과하거나 여성혐오적인 표현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사과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